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스포츠로 만든 행복, 그 행복 나눕니다

안치홍

안타·도루 1만원씩 적립 어린이 재단 기부

토토 선행상 상금 투병 김동재코치 돕기에

"0.009 부족했던 이웃사랑, 내년에는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재활 훈련 중인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안치홍이 8일 서울행에 올랐다. 9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10 프로야구 스포츠 토토 선행상 수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안치홍은 신인이었던 지난해부터 안타와 도루당 1만원씩 적립해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다. 올 시즌에는 134안타와 18도루를 기록하면서 152만원을 적립했다. 구단 지정병원 밝은 안과 21도 안치홍의 선행에 동참하면서 총 304만원이 이웃사랑을 위해 전달됐다.

안치홍은 "올 시즌 야구가 뭔지에 대해 더 알게 됐고, 힘을 버리고 야구를 하는 법 등 경험을 배운 뜻깊은 한해였다. 하지만 0.009가 부족한 0.291의 타율로 시즌을 마감했다. 내년에는 재활을 잘 마무리해서 3할 고지도 밟고 더 많은 사랑을 더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년차 어린 선수 안치홍의 따뜻한 마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안치홍은 선행상 상금으로 받게 되는 200만원을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김동재 코치의 치료비로 전액 기탁할 예정이다.

선행상을 받는 안치홍은 주말에는 별들의 잔치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2년 연속 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11일에 열리는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후보라는 게 오히려 쑥스러웠다. 올 시즌 중반부터 어깨가 좋지 않아서 고전했고, 두 자릿수 홈런에 2개가 모자라는 등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전경기 출장도 달성한만큼 올해는 더 당당하게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상은 어렵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행사장을 찾을 계획이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홍명보

홍명보장학재단, 8번째 자선축구경기 개최

수익금 소아암어린이·다문화 가정 돕기 기탁

홍명보장학재단이 개최해 온 자선축구경기가 올해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올스타팀 간 대결로 열린다.

홍명보장학재단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자선축구경기를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올스타팀 간 맞대결로 치른다"고 8일 밝혔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지난달 막을 내린 광저우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다. 올해 대회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및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인 한국 여자축구의 희망 지소연(아이낙 고베)과 여민지(함안대산고)도 출전한다.

개그맨 이수근,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 방송인 김제동도 경기에 참가한다.

2003년 시작한 자선축구경기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셰어 더 드림(Share the Dream)' 캠페인을 벌인 홍명보장학재단은 올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려운 환경의 다문화가정을 돕는 '레인보우 하우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다이나 앤 마르테즈 씨의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예년과 같이 소아암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들을 돕는 일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평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 스타 정다래(전남수영연맹)는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가수 선우, 참가 선수들과 함께 하프타임에 '캐롤 대합창 기네스 기록 도전'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자선축구경기 입장권은 홍명보장학재단 홈페이지(www.hmb20.com)와 티켓링크, 캠페인 공식 카페 '리베로의 꿈'(http://cafe.daum.net/hmbsharethedream)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경기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타격 7관왕 이대호 조아제약 대상

조범현 공로·양현종 발전상

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 타격 7관왕에 오른 이대호(28·롯데)가 일간스포츠와 조아제약이 공동제정한 2010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대호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과 순금으로 도금된 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이대호는 올해 타율 0.364를 때리고 홈런 44방에 133타점을 올려 세 부문 1위에 올랐다. 또 최다안타(174개), 출루율(0.444), 장타율(0.667), 득점(99점) 등 도루를 제외한 알짜 공격 7개 부문을 석권,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최고투수상은 올해 2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를 달성한 류현진(23·한화)에게 돌아갔다. 류현진은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류현진은 다승(16승) 타이틀은 17승을 거둔 1년 후배 김광현(22·SK)에게 내줬지만 팀이 2년 연속 최하위에 처진 상황에서도 고군분투, 평균자책점(1.82)과 탈삼진(187개) 2관왕에 올랐다.

홍성흔(33·롯데)은 최고타자상을 받아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를 챙겼다.

아시안게임 우승을 이끈 조범현 KIA 감독은 공로상(상금 100만원), 올시즌 KIA의 에이스로 거듭난 양현종(22)은 기량발전상(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김태균(28·지바 롯데)은 특별상을 가져갔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경제효과 1조 1837억원

관중 1인당 3만6500원 지출

올해 국내 프로야구가 국내 경제에 1조원이 넘는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한국 프로야구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8개 구단과 올해 관중이 지출한 규모 등을 추산한 경제 파급 효과가 1조1837억원에 달했다.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는 각 구단과 관중의 지출 내역을 조사한 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효과 수치를 산출했다.

보고서는 각 구단과 관람객이 지출한 규모를 4500여억원으로 추산했고 이로 인한 생산 파급 효과는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또 부가가치 파급효과도 4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했다.

보고서는 "고용파급효과도 546만명인 것으로 조사돼 프로야구가 다른 스포츠 산업보다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프로야구는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을 합해 역대 최다인 622만6626명을 동원했다. 관중은 입장료를 빼고 음식비, 교통비, 물품 구입비 등에 1인당 평균 3만6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구단이 지역에 미친 경제 파급 효과에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231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롯데는 부산 지역에 약 21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IA의 경제파급 효과는 롯데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홍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은 "국내 프로야구의 성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스포츠 등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오른쪽)이 8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트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발렌시아와 챔피언스리그 C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상대 수비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풀타임 활약… 맨유 챔스리그 조 1위 확정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풀타임으로 활약한 '산소탱크' 박지성(29)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과 만족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박지성은 8일(한국 시각)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발렌시아와 대회 C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마친 뒤 맨유의 한국어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고 말했다.

이날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박지성은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해 한 시즌 최다 골 기록 경신은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면서 적극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에 활로를 틔웠다.

골키퍼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전반 31분 루니가 왼쪽에서 크로스로 올린 공에 달려들어 때린 과감한 오른발 발리슛으로 상대 수비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0-1로 끌려가던 후반 15분에는 수비수를 차례로 제치고 공을 몰아 루니의 터닝슛을 유도하는 등 분위기를 살려냈다.

후반 17분에 나온 안데르손의 골도 박지성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하파엘의 크로스를 받아 오른발로 때렸고 골키퍼가 쳐낸 공을 안데르손이 재차 왼발로 밀어 넣어 만회골을 빚어냈다.

이 골을 잘 지켜 1-1로 비긴 덕에 맨유는 조별리그에서 승점 14(4승2무)로 발렌시아(승점 11)를 제치고 조 선두로 16강에 올라 첼시나 토트넘, FC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등 강팀과 초반 승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팀을 패배에서 건져내고도 박지성은 "오늘은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 많은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고 무승부에 그친 것을 아까워했다. 이어 "오늘 플레이는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 조별리그에서 1위로 16강에 진출한 것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성의 이날 활약에 대해 스카이 스포츠는 루이스 나니,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리오 퍼디난드와 같은 평점 6점을 줬다. 웨인 루니는 7점을, 동점골을 터뜨린 안데르손은 팀내 최고인 8점을 각각 받았다. /연합뉴스